



꿈청진기

2025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제6호

발행처 매일신문사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홈페이지 www.youngdream.co.kr

전화 053-255-5001

'꿈청진기'에서 진로의 길을 찾다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가 함께 한
꿈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활동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2025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이하 꿈청진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9년 시작된 꿈청진기 사업은 지역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업체를 소개하고, 이 가운데 청소년들이 선택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분석을 거친 뒤 현장에 방문해 직업 체험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꿈청진기 사업은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인 등과 만나 소통하며 해당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재와 기사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꿈청진기 사업에는 대구지역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서 총 28팀 (총 10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지역 내 12개 기업(네이처파크, 대구시의회, 대구 테크노파크, 더퍼스트병원, 리얼테크, 매일신문, 엑스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S화성, iM뱅크, SK브로드밴드, TBC)이 학생들의 취재와 체험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

기자단 활동의 결과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친 끝에 각 부문별(기사 작성 부문, 광고 제작 부문)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14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제6호 꿈청진기 신문과 기자단 활동사진 등은 홈페이지(www.youngdrea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 현황 축하합니다!

구분	기사작성 부문		광고제작 부문		훈격
	학교/팀명	팀원	학교/팀명	팀원	
최우수상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상장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최진혁, 양동석 최연준, 김민규	경원고등학교 <매일푸른기자단>	김예준, 김민찬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왕선중학교 <그린나래>	남현서, 김지민	고산중학교 <마이웨이>	박시정, 김서희, 이예림, 서지현	
우수상	강동중학교 <조정>	조윤아, 정현진	왕선중학교 <드림헌터>	안태윤, 배찬희, 허나은	매일신문사장상
	원화여자고등학교 <원화리포터즈>	최서윤, 고가람, 신혜원, 이가윤	대구보건고등학교 <브릿지>	이예진, 최효리, 김민지, 이예선, 안시현	
장려상	관천중학교 <그린나래>	김여진, 권소현, 지예영, 김나영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N4U>	전예진, 권진서, 김지현, 박소현	
	포산중학교 <포산 드림 메이커즈>	안정아, 양원서, 안정담, 이소윤	수성중학교 <수성 루미너스>	조채윤, 안수빈, 신채원, 김규나	
	시지중학교 <피스메이커>	현승현, 현승준	북현중학교 <틴-프론티어>	권누리보닉, 김도은, 김아연, 김지후, 이시현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소개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는 2000년 설립된 이후 20여 년간 대구·경북 지역 산업혁신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대구TP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을 핵심 사명으로 하며, 지역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창업 육성, 글로벌 진출, 미래 신산업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대구TP에는 약 240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3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가운데에서도 규모와 성과 면에서 선도적인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대구TP는 지역 전략산업별로 특화된 다섯 개의 전문 센터—스마트산업융합센터 △나노융합실용화센터 △한방산업지원센터 △모바일융합센터 △창업성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는 산업별 수요와 기술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수행한다. 이러한 체계적 분화는 지역 산업의 구조적 다양성과 기술적 융합을 동시에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대구TP의 핵심 경쟁력은 현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다.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투자 연계 등 기업이 성장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술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 단계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지원 시스템은 대구TP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대구TP는 단순한 기술 보조 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성장 파트너이자 혁신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조직으로 기업성장지원단과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 있다. 기업성장지원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기업을 선별하여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투자 연계를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은 청년창업자들이 기술 기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의식을 높이고,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기계공고 <상장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시지중 <피스메이커>

업종현황

지역 기업을 키우는 숨은 조력자 기술지원 기관의 현재

대구테크노파크처럼 지역 기업을 돕는 기술지원 기관들은 요즘 지역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자동차 부품, 기계·소재, ICT, 의료기기처럼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업종의 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스스로 비싼 장비나 연구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찾는 곳도 많아졌다. 시제품 제작, 기술 자문, 인증 준비 등을 맡아주다 보니 기업이 처음 시장에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첫 관문’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많다.

진출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전기차 부품, 로봇,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처럼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영역에서 기술지원이 활발하다.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 기관 역시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을 계속 늘리고 있다.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늘고 있어 관련 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많다. 또한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시장도 꾸준히 커지고 있어 지역 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할 길도 열리고 있다.

다만 과제도 있다. 지역 기업이 세계 시장과 경쟁하려면 더 많은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연결, 수출상담 등도 함께 도와주며 기술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술지원 기관은 지역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 지역 기업이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뒤에는 항상 이런 기관들의 도움이 자리하고 있다.

시지중 <피스메이커>

INTERVIEW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김륜홍 대구테크노파크 팀장

Q. 대구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이끌어주는 것이 저희 기관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중견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중견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현재 저희 기관의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결국 대구테크노파크는 이런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어려운 기업들을 봤을 때 돕고 이끌어갈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구테크노파크가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술력, 두 번째로는 성장력, 마지막 세 번째로는 CEO의 의지입니다.

기업의 기술력 기초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만큼 성장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어도 너무 앞서

나간 기술이나 너무 뒤쳐진 기술들은 시장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시장의 흐름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력도 앞과 비슷하게 그 기술력을 토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려면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대표가 좋은 직원들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대표의 마음가짐, 즉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Q.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작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크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도 처음부터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출발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통해 점점 성장하며 지금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의 꿈과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도원중 <형광펜지>

iM뱅크



기업소개

업종현황

최초에서 최고를 향한 비상, iM뱅크

은행에도 꿈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일 것이다. 1967년 설립된 최초의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은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더 큰 무대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4년 정식으로 시중은행으로 전환했고, iM뱅크로서 그 첫발을 내디뎠다. iM뱅크의 본사는 여전히 대구 수성구에 있지만, 이제 그 시야는 전국을 향한다.

iM뱅크의 직원 수는 약 3,100명,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약 5조 원, 총자산은 약 80억 원으로, 이는 iM뱅크가 단순 지방은행을 넘어 중견 시중은행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iM뱅크의 주력 서비스는 단연 디지털 금융이라 할 수 있다. ‘iM뱅크’ 앱은 은행 업무에 특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iM GPT’와 은행권 최초 우편 발송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뱅크는 모바일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전국 약 14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전통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는 iM뱅크의 고객 중심 혁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

iM뱅크는 전국 확장 속에서도 ‘지역의 온기’를 잃지 않는다. iM뱅크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한 지역 사랑 활동과 나눔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금융, 신뢰받는 금융, 함께하는 금융이라는 경영방침을 잘 보여주면서 지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났다. 특히 금융소외계층, 금융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 등의 고객밀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에서 iM뱅크의 고객 중심 혁신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덕분에 iM뱅크는 전국 시중은행으로 변신하면서도 ‘지역의 신뢰를 지킨 은행’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 점포 확장, 브랜드 인지도 확보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iM뱅크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본다. 디지털 혁신과 전국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만나고, ‘금융이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은 iM뱅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다. iM뱅크의 여정은 단지 한 은행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이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왕선중학교 <그린나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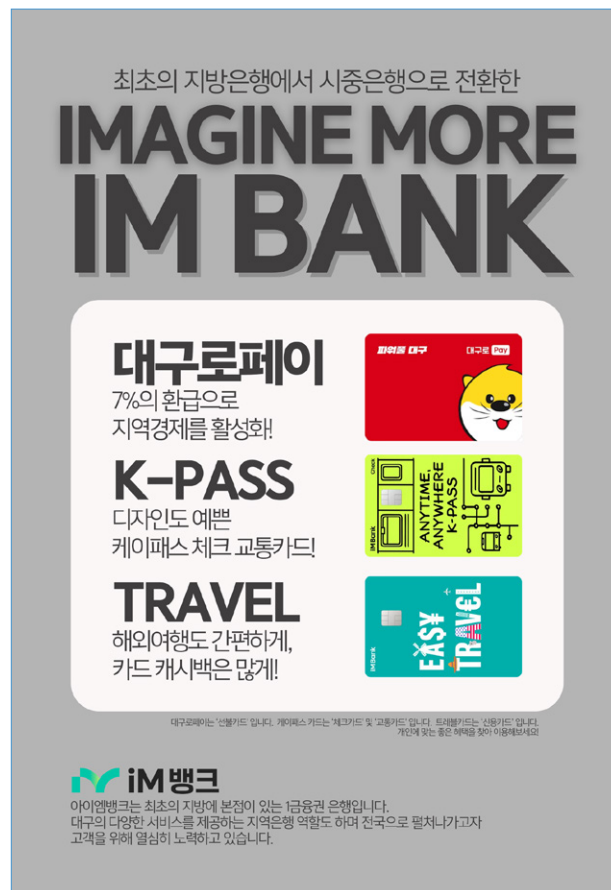
무인 금융의 시대, 디지털 뱅킹이 이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산으로 ‘디지털 뱅킹’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뱅킹은 은행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전환되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의미하며, 2023년 103억 6천만 달러였던 세계 디지털 뱅킹 시장은 2036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해 689억 8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디지털 뱅킹 시장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선두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중 iM뱅크는 은행 업무에 특화된 자체 개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iM GPT’와 은행권 최초 우편 발송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일 평균 모바일 뱅킹 서비스 규모가 2016년 3조 1,266억 원에서 2019년 6조 3,919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에서도 디지털 뱅킹이 금융업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 디지털 뱅킹 업계에서는 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AI와 클라우드 기술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정부도 금융 규제 완화와 데이터 활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왕선중학교 <그린나래>



북현중 <틴-프론티어>

INTERVIEW 이강훈 iM뱅크 프로

Q. 고객 특성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고객께서는 전통적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학생분들처럼 모바일 이용이 많은 고객께서는 앱뱅킹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은행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은행원이 되려면 전문적으로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은행원은 사라질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행 지점의 경우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에 아마 점차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 비중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광고를 제작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TV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

면서 그간의 성과가 한눈에 보여서 뿌듯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Q. 디지털 이용 취약 계층에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지출을 절약할 수 있지만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점에 방문하시면 직접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뱅킹 내에서 쉬운 모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시가 은행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람은 같은 규정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니, AI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AI가 자동으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Q.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시대에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무엇인가요?

은행에서 하는 관련 사업들은 많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활용한 행사 개최, 그린교통카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우대 이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북현중 <틴-프론티어>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기업소개

시민 삶에 닿는 변화를 모색하는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대구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다. 대구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또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소통 및 협력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대구 행정의 중심지인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에 위치해 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소속 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위원회 소속 예산결산, 윤리,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대구경북통합, 맑은 물 공급추진 등의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총 33명의 시의원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대구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더 나은 대구광역시를 조성하기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2026 예산안 편성(11조 7000억 원)을 발표하여 민생안정과 복지 분야에 6조 8808억 원,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265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00억 원 등 여러 분야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14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각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그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전문분야에서 그 부문에 속한 안건을 입안하거나 심사하고 청원, 진정, 그 밖의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정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명확히 듣기 위하여 청원을 통해 시민들의 개선 사항을 모아 수리 및 처리한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발안제도 등의 정책을 실시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차대한 현안들이 직면해 있기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있다.

경명여중 <NLP>

업종현황

대구시의회, 도시 정책의 엔진을 달다

대구시의회, 이곳은 대구의 심장입니다.

33명의 의원과 90여 명의 직원이 매년 12조 원의 예산을 움직이며 시민들의 삶을 설계합니다. 건물 안의 회의장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늘도 정책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미래가 싹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대구시의회는 중추 기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전국 광역의회와 비교하면 중상위권 규모이며, 정책 심의와 예산 검토,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심의,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 감독, 시민 참여 확대는 이 의회의 핵심 역할 영역입니다. 복지, 환경, 교통, 청년 정책 등 의회가 다루는 분야는 도시 전체를 아우릅니다.

대구시의회는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닙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

정책 입법, 청소년 정책 참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참여의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책 산업의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나온 작은 결정 하나가 도시 곳곳의 시민 삶을 바꿉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정책 전문성 요구가 늘어나면서 지방 의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과 정책 연구 강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의견이 충돌하고 조율되며, 정책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 집니다.

도시의 내일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존재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단순한 행정 실행 기관을 넘어, 지역 전체 산업의 엔진으로 도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입니다. 도시 정책의 씨앗이 뿌려지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대구시의회입니다.

수성중 <수성 루미너스>



경원고 <매일푸른기자단>

INTERVIEW 이재숙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에서 4년째 시민들과 적극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숙 의원님을 만나 여쭙보았습니다.

Q. 대구시의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의원연구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 단체란 말 그대로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 단체인데, 대구 시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대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정책지원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16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대구시의회는 시민들과 소통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듣는 진정성 있는 자세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시정의 공동 주체로 인식하고, 솔직하고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채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의견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제안할 수 있는 시민제안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정과 협력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원화여고 <원화리porter즈>

TBC

TBC

기업소개

지역 일상을 담아온 민영 지상파

1994년 10월 7일 설립된 TBC는 대구·경북의 유일한 민영 지상파 방송사로 텔레비전 방송과 함께 라디오 채널인 '드림 FM'을 동시에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포괄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BC는 단순한 방송국의 기능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소통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BC의 방송 활동은 '지역 미디어'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콘텐츠 송출보다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지역 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발 빠르게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논의의 장을 형성한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로그램,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 및 방영함으로써 지역의 정서와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지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조명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TBC가 가진 차별성은 '지역 밀착성'이다. TBC는 대구·경북 지역의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한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행사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중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 산업 및 생활 정보를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TBC가 지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미디어'로 인식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BC는 지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허브로서 기능한다.

TBC는 전통적인 방송 영역을 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자회사인 (주)티비씨 엔비(TBC NB)는 방송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들을 주최하며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는 TBC가 단순히 전파를 송출하는 기존의 기능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문화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고산중 <마이웨이>

업종현황

TBC가 속한 '지상파 방송업'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방송 제작과 편성 등이 주된 사업 분야이며 광고와 콘텐츠 판매가 주 수익원이다.

지상파 방송업은 매출 감소와 시청률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과 경쟁 심화, 디지털 플랫폼 성장 등에 따른 환경 변화가 주된 이유이다. 때문에 방송사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을 위해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는 추세이다. 시청률 하락과 광고 시장 위축으로 기존 수익 구조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작과 판매, 지역 행사 기획 및 운영, 공연 제작 및 티켓 판매 등의 분야는 이미 많은 방송사의 주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제작 및 제휴, 모바일 미디어 관련사업 추진 등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사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익 모델 다변화를 추진하는 분위기다.

대구여성 <N4U>



고산중 <마이웨이>

INTERVIEW 김예은 TBC 아나운서

Q. 숏폼, OTT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롱폼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TBC만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TBC도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 SNS 등 여러 플랫폼을 활발하게 성장시키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역시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아나운서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 능력과 협업을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며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방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아나운서 또는 방송 분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방송 분야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에서 얻는 경험과 배움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강동중 <장카셀>

SK브로드밴드



더퍼스트 병원



기업소개

ICT서비스로 세상을 연결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창출하다

SK브로드밴드는 1997년 ‘하나로텔레콤’으로 설립된 이후 2008년 ‘SK브로드밴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국내 통신 산업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며 유선 및 무선 인터넷, IPTV, 고속 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4조 4,15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통신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5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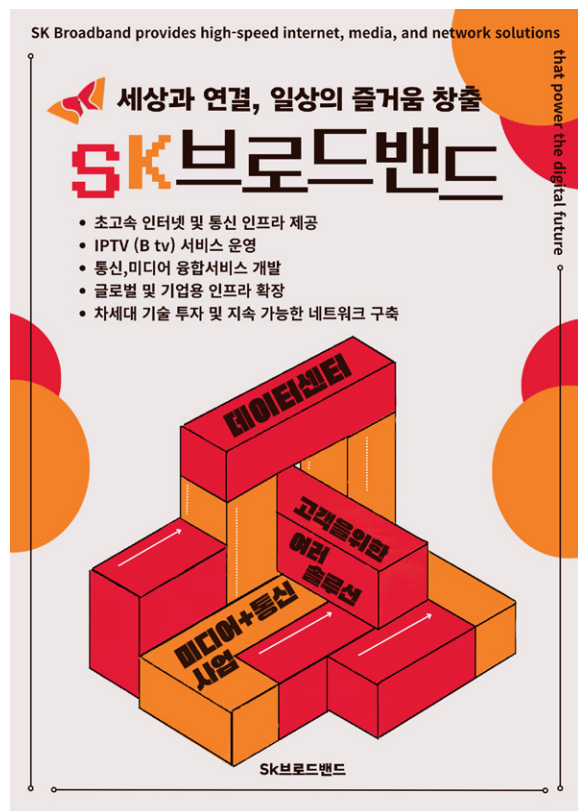
회사는 축적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 접속 회선과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IPTV 서비스인 ‘B tv’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편리한 사용자 경험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 역량을 강화해 고객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 해저케이블 구축과 IDC 사업 확장 등 통신 인프라 고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G와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의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미디어와 유선통신으로 구성된 사업 구조는 고객 중심의 혁신 전략과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 콘텐츠 다양화와 마케팅 강화로 미디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 서비스에서도 안정성을 기반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의 협력은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회사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와 데이터센터 투자를 계속 확대하며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통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AI 기반 서비스의 고도화와 글로벌 인프라 확장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객 중심 서비스와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종합 통신·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왕선중 <드림헌터>



왕선중 <드림헌터>

기업소개

환자가 행복한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퍼스트 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더퍼스트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쾌적한 시설과 첨단 의료 시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시경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수술실, 기초검사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검진부터 수술, 치료,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환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기기인 MRI(자기공명 영상기기), CT(전산화 단층촬영기), 내시경 검사기기, 골밀도 측정기기 등의 첨단 의료 기기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과 고품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퍼스트병원의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닌 숙련된 전문의의 협진이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욱(병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중호(진료원장), 내과 전문의 박민규(진료원장), 김민철(병원장), 박재현(대표원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주호(병원장)등이 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 증상에 맞는 맞춤 검진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 맞춤형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퍼스트병원은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강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진료도 시행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처럼 더퍼스트병원은 전문 의료진 협진과 첨단의료기기,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통해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으며 환자 행복을 최종 목표로 맞춤형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월서중 <TNT>



대구여상 <N4U>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리얼테크

리얼테크
REAL TECH Co., Ltd

기업소개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987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지난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전산원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NIA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근원이다. NIA는 36년간 국가의 CTO(최고기술책임자)와 CIO(최고정보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며, 1987년 개원 이래 국가기간전산망 기본 계획을 수립,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개통, 광대역통신망(BcN) 시범서비스 개통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2018년 학교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시, 2019년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의 성과 만들어내며 생활 기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NIA의 역할이 크다. AI 전담 조직을 신설해 AI 정책 수립, AI 융합 서비스 확산, AI 관련 인프라 구축 등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울산항만공사 등에 AI를 활용한 지능정보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AI 시대의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AI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윤리, 보안, 거버넌스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왕선중 <도도한 도라에몽 시즌2>

기업소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리얼테크는 “기술은 리얼하게, 혁신은 테크로”라는 슬로건 아래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2017년 설립된 ㈜리얼테크는 매출액이 5억 원 규모이며 직원 수는 5명이다.

㈜리얼테크는 무인항공기(드론)와 관련된 R&D, 특수드론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R&D와 드론 아카데미, 정비 센터 운영, 시설물 안전 진단·점검 분야는 리얼테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R&D 사업에서는 드론과 IoT 기술의 융합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비행하는 자율비행 시스템 개발과, 드론 교육 시뮬레이터 연구 개발 및 부품을 제작하는 일을 한다.

드론 아카데미에서는 기초과정, 민간자격증 취득,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다루는 드론 전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용 드론으로 전문적인 실습과 특수 비행 훈련을 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드론 유통 및 전문 정비 센터에서는 교육용 드론과 일반용, 전문 산업용 드론을 유통·판매하면서 전문화된 정비를 하고 있다. 또한 파손이나 추락으로 발생한 드론의 수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시설물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도 리얼테크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에너지, 교통, 건설 분야의 시설물 외관을 드론으로 정밀 점검하여 유지관리를 하며, AI를 활용한 고화질 이미지 처리와 구조 3D 모델링을 시행한다. 또한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을 드론으로 촬영해 위험한 부분을 찾아내고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 속 현실이 된 시점에서 드론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과 교육, 현장 적용을 모두 갖춘 ㈜리얼테크는 “기술은 리얼하게, 혁신은 테크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을 이끌어 가는 드론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포산중 <포산 드림 메이커즈>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열다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왕선중 <그린나래>



기술은 리얼하게, 혁신은 테크로!

(주)리얼테크

- | | | |
|--|---|--|
| 1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기술융합 • 인공지능 기술 • 자율주행 • 자율비행 | 2 DRONE ACADE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기초교육부터 지도사 • 과정 정비 및 자율비행 • 자격증과정 | 3 Real S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VR) 기반 드론 • 교육 시뮬레이터로 드론 • 비행교육 • 시설물 점검교육 |
|--|---|--|

“리얼테크: 미래를 비행하다”

realtech2017@naver.com

real-tech.co.kr



포산중 <포산 드림메이커즈>

네이처파크



기업소개

아기 백사자가 가르쳐 준 공존의 하루

대구 달성군 산자락에 자리한 네이처파크는 단순한 동물원이 아니다. 약 12만 평 부지에서 50여 종의 동물과 다양한 식물을 보호하며 운영되는 이곳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생태 실험실이다. 100여 명의 직원이 동물 관리, 시설 운영,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네이처파크의 강점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배우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처럼 단순 전시가 아닌, 동물의 행동과 서식지 재현에 기반한 복지 중심 운영이다. 방문객들은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이처파크는 단순 관광지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교육 기관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25년 8월 태어난 아기 백사자 삼남매는 네이처파크의 생태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컷 루카, 암컷 루나, 그리고 저체중으로 집중 관리 중인 또 다른 암컷은 현재 전담 사육팀의 24시간 인공 포육 아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루카는 출생 시 1.6kg, 루나는 1kg, 동생은 800g이며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아기 백사자 첫 나들이’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에게 일부 공개된다. 방문객들은 아기 백사자의 움직임



수성중 <수성 루미너스>

과 놀이, 어미와의 교감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백사자의 행동을 기록하며 관찰력과 책임감을 배우고, 일반 방문객도 동물 복지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낀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작은 발걸음 하나에도 방문객들은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동물과 자연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번 아기 백사자 공개는 단순 볼거리 이상으로, 관찰과 기록, 책임과 공존을 통해 교육적 의미를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처파크는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현장 학습 공간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여상 <임팩트>

업종현황

네이처파크가 속한 생태체험·교육형 관광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자연 기반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순 관람보다는 학습과 체험이 결합된 관광이 주목받는다. 업종 규모는 전국적으로 확장 중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출 분야는 동물원 운영, 체험 학습, 환경 교육, 지역 연계 생태 관광 등 다양하다. 향후에는 자연 친화적 콘텐츠와 교육적 가치가 결합된 복합형 기관과 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처파크는 업계 내 선도적 위치를 점하며,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 생태 교육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역 학교와 협력해 체험 학습, 생태 캠프, 보호종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 방문객도 생태 보호 의식과 환경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관찰과 기록, 책임과 공존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적 가치가 크다.

대구여상 <임팩트>



INTERVIEW 손인제 네이처파크 부장

Q.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사육사라는 일을 ‘직업’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과 식물을 가까이에서 돌보다 보니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자연과 함께하는 일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사육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동물 상태 체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후 청소, 먹이 준비,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먹이 상태나 배변 상태 같은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관리, 건강관리, 시설팀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동물이나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물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작은 변화로도 동물과 식물의 건강 상태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네이처파크가 단순한 동물원이 아니라 ‘생태테마파크’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이처파크는 동물이 원래 살던 자연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공 조형물도 자연과 비슷하게 꾸며 동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생태테마파크’라고 부를 수 있어요.

Q. 네이처파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네이처파크는 고객의 만족과 동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벤트를 준비할 때도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객의 이동 동선 등을 조절해요.

Q. 동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기본은 ‘친해지려는 노력’입니다. 동물마다 성격과 거리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다가가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인공적인 공간에서도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공 조형물이라도 자연 환경에 가깝게 만들고, 동물이 갑갑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선중 <딸기모찌>

매일신문사



기업소개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매일신문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종합 일간지 매일신문은 1946년에 창간되어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전해왔다. 매일신문은 오랜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온 언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매일신문사에는 약 226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일신문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취재 활동을 하는 지역 언론사 중 한 곳으로, 대구·경북 최대의 지역 일간지다. 지역 일간지로서 해당 지역에서 구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매일신문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매일신문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눔과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계명문화대학교 카리타스 봉사단의 울릉도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 현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주민과 군장병들을 위한 네일 케어, 건강 진단, 심폐소생술 교육, 헤어 커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모습을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는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움직임을 확산시키고, 나눔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일신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서, 지역 내 봉사단체와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과 협력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매일신문사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연대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처럼 매일신문사는 언론의 본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올해로 창간 79주년을 맞이한 매일신문사는 단순한 언론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든든한 매개체로서 자리매김해왔다. 수많은 봉사 현장을 기록하며 나눔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해온 매일신문은 앞으로도 봉사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는 대구 시민들의 삶과 희망을 담아낸 역사이며, 그 길 위에서 매일신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빛을 비추는 언론으로 남을 것이다.

강동중 <조정>

업종현황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전달받는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매체는 인쇄 매체, 미디어 매체, 영상 매체가 있다. 산업 발전의 영향에 의해 우리의 생활은 아날로그에서 벗어나 디지털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중이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종이로 된 아날로그 신문보다는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이 더욱 익숙하다.

이러한 매체의 변화에 더불어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 더욱 인터넷 매체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은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처음에는 단순 작업만이 인공지능에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이 접목되며 불가침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에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이제 뉴스나 기사의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기자라는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다. 기사는 단순히 기사를 통하여 그저 소식을 전달하는 것뿐인 직업이 아니다. 기사는 새로운 소식만이 들어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에 대한 정확성과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힘 또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은 결코 기자라는 직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관천중 <그린나래>



관천중 <그린나래>

INTERVIEW

이호준 매일신문사 논설위원

Q.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신문 제작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변화가 많은 직업 특성상 적응력과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기사가 편향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취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좋은 기사란 어떤건가요?

기사란 자고로 기자의 애정과 혼을 갈아넣어야 합니다. 애정이 담겨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가 좋은 기사입니다. 흔히 뻗거리라 부르며 대충쓰는 기사나 누군가에게 곤욕을 겪게하는 기사여서는 안됩니다. 진심을 녹여내 쓰는 기사는 좋은 기사의 근본이며 정론직필이 중요합니다.

Q. 매일신문 프로그램 중 애정이 담긴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시는 할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딱한 마음에 찾아간 것이 시작이 된 ‘아름다운 함께 살기’(현재는 ‘이웃사랑’)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본인

도 폐지를 주위 살아가지만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기사에 실은 후 기사를 접한 많은 분들이 모금요청을 주신 일을 바탕으로 코너가 현재까지 이어져 국내의 유일무이한 사례이자 기네스북에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Q. 독자들에게 매일신문이 어떤 신문으로 기억되셨으면 하나요?

매일신문이 자유당 시절 힘있는 야당지이자 진보신문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현재는 대표적인 보수 신문으로 알려지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논조가 보수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일신문이 보수신문이 아닌 다양성을 다루는 신문으로 독자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Q. 기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회의 모든 면을 들추어내고 고발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 기자 말고는 없다는 생각으로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만약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회에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될 겁니다.

구암고 <온에어>

엑스코



기업소개

업종현황

엑스코(EXCO), 지역을 넘어 세계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엑스코는 2001년 개관 이후 대구·경북의 산업 발전과 국제 교류를 이끄는 플랫폼으로서 현재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엑스코는 6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2024.12. 기준) 경영본부와 사업본부의 두 업무 분야로 나누어진다. 경영본부는 경영 전략 및 목표를 구상하거나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활용하여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업본부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회의실과 전시실을 대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다. 일반 회사들과 달리 엑스코는 다양한 전시와 회의를 기획하는 비교적 많은 사업본부를 조직하고 있다.

엑스코는 전시회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개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구국제미래모빌리티엑스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여러 산업의 다양한 전문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며 전시산업을 통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첨단 의료 등 대구시가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시 기획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경우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민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개최되었으며, 소방 장비, 안전 기술, 화재 대응, 재난 관리 관련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이자 소방·재난 산업 발전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는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처럼 엑스코는 지역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기술과 문화를 널리 전하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엑스코의 핵심 사업이자 자랑스러운 'MICE 산업'이다. MICE는 Meetings(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s(국제회의), Exhibitions/Event(전시·이벤트)의 약자로, 기업과 기관의 비즈니스 행사와 국제 교류를 포괄하는 산업을 뜻한다. 엑스코는 앞으로도 산업·관광·문화가 융합된 'MICE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포상관광 프로그램 유치와 산업별 전문 전시회, 국제학회와 정부 간의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컨벤션 행사에도 적극 나서며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신중 <잉크결즈>

21세기에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 엑스코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제 교류와 지역 산업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시산업과 일상의 교차로가 되어주고 있다.

지역 MICE 산업의 대표주자인 엑스코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 카페 쇼', '대구 크리스마스 페어' 뿐만 아니라 '더골프 쇼 in 대구', '케이 애완견 페어', '대구 국제 안경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엑스코는 앞으로의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될 로봇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등의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래산업의 흐름을 예측하여 AI 관련 분야에 대한 전시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엑스코는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시와 컨벤션, 문화 행사를 더 확대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며 성장하고 있는 엑스코의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영신중 <잉크결즈>



영신중 <잉크결즈>

INTERVIEW

김은파 엑스코 차장

Q. 콘텐츠 산업과 전시 산업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콘텐츠 산업과 전시 산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 같아요. 사실 이걸 거의 전문 기자 수준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콘텐츠라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

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우리의 문화와 대구만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고, 대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전국이나 해외 기업이 참여한다면, 지금 주로 인기있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VR/AR같은 분야에서도 좋은 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며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엑스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점이 무엇인가요?

엑스코는 전시와 컨벤션을 함께 기획해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전시회를 통해서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는 산업적 기능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Q.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때 힘들거나 보람을 느끼시나요?

대규모 전시를 준비할 때 쉽지는 않지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기업이 전시회를 통해 실제 성과를 얻는 것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며 지역 산업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산중 <지산 점핑>

HS화성

HS 화성

기업소개

HS화성, 지속가능한 도시와 미래를 짓는 67년의 기업

1958년 설립된 HS화성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 ‘쾌적한 환경 조성’,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핵심 이념으로 출발한 HS화성은 지난 60여 년 동안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4년에 회사는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명을 ‘화성산업’에서 ‘HS화성’으로 변경하고, 미션 ‘MAKE Solutions’를 선포했다. 이는 건설 기업을 넘어 고객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HS화성의 토목사업은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도시고속화도로, 울릉도 일주도로, 제주 성산포 관광단지 일주도로 등 굵직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도시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남지대교 공사에 최신 연속압출공법을 도입했으며, 대구지하철 건설에는 무진동·무소음 공법을 적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술력은 HS화성이 미래 도시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업임을 입증한다.

건축 분야에서도 HS화성은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해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층 오피스 빌딩, 종합물류센터, 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능성과 미관을 갖춘 건축물을 제공해 왔다.

인텔리전트 빌딩을 포함한 미래형 첨단 건축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 중심의 친환경 설계 등은 HS화성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현대 도시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이끌며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주택사업 분야에서도 HS화성은 독자 브랜드 ‘파크드림(Park Dream)’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를 실현해왔다. 파크드림은 굿디자인상, 환경주거문화대상 등을 수상하며 주거 품질을 인정받았다.

수도권 1·2기 신도시와 전국 주요 지역에 공급한 친환경 아파트 단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으며,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맞춤형 주택 전략은 HS화성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

HS화성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서도 설계·시공·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통합 솔루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진 기술 도입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이 같은 역량을 통해 HS화성은 산업화된 환경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기후 변화와 환경 이슈가 대두되는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왕선중 <배드애플>

업종현황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를 넘어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기술 기업

HS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로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며, 대구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화성과 크드림’과 지역 랜드마크 ‘엑스코’ 등의 건설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다.

HS화성은 2025년 기준 대구 건설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중이다. 친환경 설계를 도입하여 ‘화성과크드림’ 브랜드를 통해 첨단 스마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 주거문화 혁신과 연계된 지역의 가치 상승이 HS화성의 성과로 평가받으며 건설업계에서 기술력과 재무 안전성 모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HS화성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며, 대한민국 건설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HS화성은 iF디자인, 레드닷 어워드 수상에 이어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 3건과 굿디자인 선정 1건 등 총 4개 부문을 수상하였다.

이는 HS화성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건설 기술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성과이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도 기업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HS화성은 친환경 및 주거·토목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 혁신을 추진한 결과, 지역 건설업 부진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단순한 건설시공 기업을 넘어, 대구의 주거 및 산업, 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건설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현재 15개국에 진출한 HS화성은 기술력 인증과 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건설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대구보건고 <브릿지>



대구보건고 <브릿지>

INTERVIEW

이재철 HS화성 책임

Q.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HS화성에서 필요한 자질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경험 축적입니다. 건설 산업의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 업무에서는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재와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책임감도 요구됩니다.

Q. 후배 직업인이나 취업 준비생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전문 자격과 경험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군별로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최고의 조

언입니다.

Q.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직업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은 HS 화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현장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경험과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이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반면, 건설 현장은 계절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이 유동적이고 기술적 난관이나 현장 관리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기공 <꿈을찾아이동>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채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배움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

꿈청진기는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정보, 기업 분석, 직업인의 특성 등에 대한 취재 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 온라인 기사작성 등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결과물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